

더 불 어

(제2호 5·6월)

발행처-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 발행인-최상철 | 기획-홍보팀 | 홈페이지-www.region.go.kr

정책 핫이슈

Contents

- 정책 핫이슈 1
"4대강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산다"
- 정책 포커스 2
지역발전위원회, 국제컨퍼런스 개최
'08년 군특사업 평가결과
- 위원장 메시지 3
"발전은 성장+균형입니다"
- 지역 안테나 4
논산, "명품딸기 덕에 불황 몰라유"
대전, 자전거 명품도시로 전국 주목
광주전남, 천일염·김치로 세계 공략
대구·경북, 지역민 경제심리 먹구름 걷혀
경북, 귀농인 지원 조례안 발의...전국 '첫 추진'
강원, 예산 조기집행 순조...현재 39.6% 집행
제주, 고용률 전국 '최상위권'
- 중앙 풍향계 6
4월말 11.7조원, 계획대비 111.5% 재정집행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세부 프로젝트 확정
노후산업단지 첨단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청주공항 운영권 민간매각
준산업단지 지정 완화, 6월27일 시행
지난해 2,218가구 귀농...경북 '최다'
소규모 면 2개 이상 조례로 자율통합 가능
- 글로벌 인사이트 8
해외정책 사례연구 - 일본 광역발전계획

“4대강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산다”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회 토론요약-



▲ 4대강 살리기 합동 보고대회

“..좋은 환경은 국민의 심성도 바꿉니다. 청계천에는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발을 밟아도, 부딪혀도 서로 웃고 화해합니다. 청계천이 1천만 서울시민의 마음을 바꾸었듯이, 4대강도 5천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정서를 바꿀 것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

1부 토론: 전체 추진방향

· 4대강 살리기는 선제적인 국가전략이다. 조만간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브랜드가 될 것이며, 세계 녹색성장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다. 4대강을 세계 최고의 강으로 만들기 위한 利水, 治水, 活水는 물론 향후의 경제적 활용까지 고려하자. 이승환(홈플러스 그룹 회장)

· 청계천이 서울을 살리고, 친환경적 도시로 변모한 사례는 하버드 대학이 성공적 녹색계획 기법으로 연구할 정도다. 마스터플랜에는 강 살리기뿐 아니라 지역과 주민에 초점을 맞춘 지역발전 및 사람살리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허재완(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4대강 사업은 건설뿐 아니라 연관 산업분야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녹색 문화관광상품 개발, 디지털 문화콘텐츠 융합상품 개발 등 새로운 블루오션의 창출이 가능하다. 효과적인 대국민홍보를 통해 성공을 앞당겨야 한다. 송은숙(한국인식기술 대표)

2부 토론: 세부 추진전략

· 4대강 사업이 성공하려면 공조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지자체, 지자체-지자체, 그리고 민간-공공부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4대강은 구도심 재생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도 연계되어 있다. 4대강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박양호(국토연구원장)

· 4대강 살리기는 환경보호, 국토개발, 그리고 지역발전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실행단계부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환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협조해 갈등을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 김영섭(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 광주전남의 영산강 살리기 지지율이 60%를 넘을 만큼 4대강 사업으로 호남주민들도 깨어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영산강 주변의 기존 민간협의체들을 네트워크해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이정록(전남대 사회과학대학장)

정책 포커스

지역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 발전 국제컨퍼런스」 개최

-5+2 광역경제권, 대한민국을 키우는 힘-

〈2009 광역경제권 발전 국제컨퍼런스 일정〉

구분	일시	행사내용
개막식	7.8 (수) 14:00~15:40	▷개회식(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광역권 중심 지역발전정책의 의의와 비전 (Peter Hall 교수, A. Faludi 교수 등)
일반분과 I	16:00~18:00	▷한국 광역경제권의 현안과 해외 선진 광역권의 경험
일반분과 II	7.9 (목) 10:00~12:00	▷신 지역정책 패러다임-지역간 협력과 거버넌스 이슈
일반분과 III	13:30~16:00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강화방안 (신성장동력)
종합토론	16:20~18:00	▷한국 광역경제권의 추진방향 및 미래비전 도출
PRCUD 분과	10:00~12:00	▷신경제지리학의 동향과 시사점

“발전은 성장+균형입니다”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우리의 각오-



정책 포커스

‘08년 균특사업 평가결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기관정비」

충청권

논산, “명품딸기 덕에 불황 몰라유”

대전, 자전거 명품도시로 전국 주목



▲논산 딸기축제에 참가한 외국인들

〈논산딸기 현황〉

재배면적	849 ha
생산량	2만 6,438톤 (전국대비 13%)
재배농가	1,922 가구
농가당 소득	5,196 만원
딸기 가공업체	3개
딸기축제	관광객 100만 명, 200억원
딸기수확 체험	연간 10만 여명, 10억원
딸기수출	76만 7,000달러 (101톤)

호남권

광주전남, 천일염과 김치로 세계 공략



▲전남 천일염 염전



▲광주 김치나눔 사랑메세나 현장

대경권 대구·경북 지역민, 경제심리 먹구름 걷혀

귀농인 지원 조례안 발의, 전국 '첫 추진'



▲경상북도의 귀농안내 책자

강원권 예산 조기집행 순조, 4월말 현재 39.6% 집행

제주권 제주 고용률, 전국 '최상위권'

기획재정부 4월말까지 110.7조원, 계획대비 111.5% 재정집행

지식경제부 노후산업단지 첨단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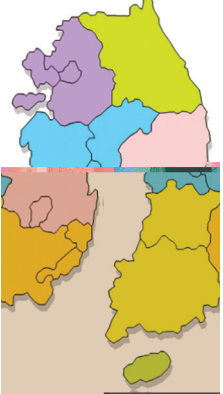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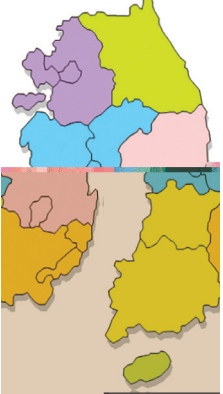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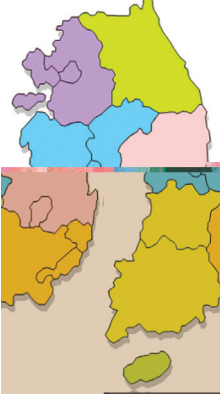
〈 4대 중점관리분야 재정집행 실적 ('09.4월말 기준) 〉 (조원, %, 누계)

구 분	'09 계획	09.4월말			상반기 계획	
		계 획(A)	실 적(B)	집행률(B/A)	금 액	진도율
계	74.9	29.0	36.2	124.8	47.9	64.0
금융시장안정사업(9개)	3.8	3.8	3.8	100.0	3.8	100.0
일자리 사업(211개)	4.5	2.1	2.2	105.5	3.2	70.0
민생안정사업(125개)	23.7	9.2	10.3	111.0	14.4	60.7
SCO사업(1,170개)	42.9	13.9	19.9	143.1	26.5	61.8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세부 프로젝트 확정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및 세부 프로젝트〉

*3년후 목표: 수출 60억불 및 고용창출 20,000명

수도권	선진 일류국가, 글로벌 비즈니스허브		강원권	관광휴양·웰빙산업, 프론티어 성과목표: 해외환자 5,000명 유치	
선도산업	지식정보산업		선도산업	의료융합	의료관광
충청권	한태평양시대, 기간산업·물류중심 성과목표: 수출 10억불, 고용 5,000명		세부프로젝트	·의료기기·U-health	·관광객유치·의료바이오
선도산업	NEW IT				
세부프로젝트	·무선통신·반도체				
호남권	문화예술·친환경, 녹색 창조지역 성과목표: 수출 12억불, 고용 3,000명		대경권	전통과 첨단, 신성장지대 성과목표: 수출 7억불, 고용 8,100명	
선도산업	신재생 에너지		선도산업	그린에너지	IT융복합
세부프로젝트	·태양광·풍력		세부프로젝트	·태양전지·수소연료전지	·의료기기·로봇
	·하이브리드카·LED				
제주권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성과목표: 수출 5천만불, 고용 600명		동남권	첨단산업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성과목표: 수출 30억불, 고용 4,200명	
선도산업	물산업		선도산업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세부프로젝트	·먹는생수·수처리		세부프로젝트	·그린카·해양플랜트	·기계부품·수송부품
	·컨벤션·인센티브투어				

국토해양부 청주공항 운영권 민간매각



▲청주공항

국토해양부 준산업단지 지정 완화, 6월27일 시행

행정안전부
소규모 面2개 이상
조례로 자율통합가능

농림수산물식품부 지난해 2,218가구 귀농, 경북 '최다'

경북	485
전북	385
경남	373
전남	289
충남	227

지난해 지역별 귀농현황
(단위:가구, 자료:농림수산물식품부)

해외정책 사례연구 - 일본

일본,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47개 도도부현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 상품과 특산품을 전시하고 판매도 실시